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장대교 과장(044-203-5720), 이응대 사무관(5721)

산업부, 이라크 공습사태관련 긴급 상황점검반 회의개최

□ 산업부는 8.7일 미국의 공습결정에 따른 이라크 사태가 현지진출 기업 및 유가 등 국내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긴급 점검하면서 사태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 대책을 강구함

○ 산업부 문재도 2차관은 10일 오후 4시 서울 기술센터 17층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, 코트라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, 플랜트산업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사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함

□ 쿠르드지역내 석유가스 개발 및 이라크 남부 플랜트건설 상황 점검

○ **(석유공사)** 쿠르드지역 내 탐사광구 2개(상가우사우스, 하울러), SOC 건설 (카밧 발전소, 바지안 변전소) 등 3개 사업 추진 중으로,

- SOC 건설 담당 12명은(포스코건설 11명, 한미글로벌 1명) 아르빌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으며, 향후 상황을 점검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할 계획

* 2개 탐사광구는 정상 가동 중 : 상가우사우스 광구는 교전지역과 원거리에 위치(2 - 300km)한바, 탐사시추 진행 중(3명 현장근무 중), 하울러광구는 Oxy사(캐) 개발 중

○ **(가스공사)** 유전 2개(바드라, 쥬바이르), 가스전 2개(아카스, 만수리아), 배관 설치공사(베이지-키르쿠크) 등 5개 사업 추진 중으로,

- 유전 2개는 운영사(가스프롬, 터키)에 의해 정상 운영 중(가스공사는 지분투자)이며, 가스전 2개 및 배관설치 공사는 치안악화로 중단함

- 가스공사 사업현장에 파견된 직원은 없으며, 바그다드 단기출장자 및 아르빌 대피 직원 1명도 긴급 귀국토록 조치함

※ 가스공사 이라크 파견직원 현황(8.10일 기준) : 총 4명
- 바그다드 3명(단기방문, 12일 출국예정), 아르빌 1명(배관공사, 10일 출국예정)

○ **(플랜트 기업)** 현재 STX중공업, LG전자, 한화건설, 대우건설 등 총 80여개 기업, 1,000여명의 직원이 정상 작업 중이며,

- 반군점령 위험지역인 아닌 남부지역에 사업장 및 직원이 체류하고 있으며, 한국대사관과 협조하여 비상시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
□ 국제유가 동향 및 무역현황 점검

○ **(국제 유가)** 오바마 미국대통령 공습 승인 후 소폭 상승세이나 두바이유 기준, 전주 대비 1.07%, 전월대비 4.1% 하락

구 분	14.5	6.10	8.6(수)	8.7(목)	8.8(금)	전주비	전월비
두바이유($/B)	105.62	105.16	102.87	103.00	103.85	-1.07%	-4.10%
WTI유($/B)	101.79	104.35	96.92	97.34	97.65	-0.23%	-6.41%

- 향후 사태 악화시 단기 급등할 가능성은 있으나, 유사시 소비국들의 전략 비축유 방출과 산유국의 대체 증산 등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

* 이라크 생산차질이 본격화될 경우, 유가 상승폭이 20~40$/B 수준일 것으로 전망

○ **(무역 동향)** 對 이라크 수출액은 '13년 기준 19.7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0.4%에 불과한 바,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

*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로써 전체 수출품의 48%를 차지,

□ 산업부 문재도 2차관은 "금일 상황점검 결과 우리 기업 공사현장이 미국의 공습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쿠르드지역 석유가스 개발 및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플랜트 건설의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"고 평가하고,

○ "미군 공습이 제한적, 선별적인 성격인 바, 이라크 전역으로 교전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나 상황 악화시 현장보존 및 인원철수 등 비상조치를 시행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○ 아울러 “현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바, 현재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가동 중인 상황점검반을 통해 매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출기업 사업추진을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